

목포시 공동주택 민원해결 팔 걸었다

급증하는 민원 해결 위해 감사제 도입·전문가 멘토지원단 운영

결핍하면 시정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공동주택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9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감사제도 도입과 전문가 멘토 지원단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

목포시가 밝힌 공동주택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9건에 불과했던 민원이 2016년 67건, 2017년 94건, 2018년 8월 말 현재 6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관리비 사용 등을 둘러싼 다툼과 반목이 대부분이다.

특히 제기된 민원의 경우 다분히 감정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선동적인 민원이 대부분으로 입주자 간 대화와 소통, 민주주의적 타협과 협의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

는 게 목포시의 분석이다.

또 최근 들어 층간소음과 주차문제 등으로 입주자간, 관리자와 입주자간의 분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목포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동주택 고질민원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나 시의 개입을 요청하고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속·반복되면서 결국은 집단민원으로 변질된다"고 말했다.

이에 목포시는 앞으로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및 시공관계자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단 감사제도'를 도입,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시는 퇴직공무원·회계사 등을 멘토로 위촉해 공동주택 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



목포시가 공동주택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감사제도 도입과 전문가 멘토 지원단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제13차 아파트 주민들이 시정 민원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전문가 멘토지원단' 운영도 병행하기 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직무연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오는 10월 중 임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온라인 시민 청원제' 운영 목포시 소통행정 나서

목포시가 김중식 시장의 소통행정 의지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시민 청원제'를 운영한다.

목포시는 시민이 자유롭게 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창구 필요성이 제기돼 청원 시스템을 개설·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 청원제 시스템은 현재 운영 중인 목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서비스 메뉴에 구축되며, 청원 신청→접수 검토→청원 채택→청원 추천·답변 등 5단계로 운영된다.

청원 추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 추천 시 성립되며 성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온라인으로 답변한다는 게 목포시의 계획이다.

현재 청원제도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청원 성립 기준은 전남도의 경우 30일에 500명, 여수시 20일에 500명, 포항시 20일에 2000명, 서울특별시 30일에 1000명이다.

청원대상은 시 주요정책, 불합리한 제도, 현안 이슈 등에 대한 정책 건의나 개선요구 사항으로 한정된다.

목포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시민 참여·소통·협력하는 열린 시정 구현과 함께 정책 수용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청원제 시스템은 오는 20일 전후로 임시 개통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야행' 대성공...3만5000여명 밤빛 나들이 즐겨

문화축제 발전 가능성 입증

근대역사 문화 1번지 목포 원도심에서 펼쳐진 '목포 야행'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문화축제에 발전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1897 목포 모던 타임즈'를 테마로 근대역사관 일대에서 열린 목포 문화제 야행에는 시민·관광객 등 3만5000여명이 밤빛 나들이를 즐겼다.

그동안 주간에만 관람이 가능했던 7곳의 문화제가 야간 개방된 데다가 목포의 시대성과 정체성을 표현한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행사 등이 겹쳐져 인파들이 몰리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목포시의 분석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시 주도 대규모 행사에는 관제동원이 뒤따랐지만 이번 행사에는 관제동원이 전혀 없어 더욱 값진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공생원을 주제로 진행된 개막공연 '불멸의 사랑'을 비롯해 옛 일본 역사관에서 극단 깃들이 선보인 '목포 근대 가요 콘서트', 성육기념관에서 펼쳐진 '이매방 살풀이 춤', 폐막 공연 '찬란히 빛나리, 목포의 이난영' 등은 시대상을 반영한 공연으로 인기를 끌었다.

또 청사초등학교 불 밝힌 근대역사관 2관 일대에서는 '시대를 만나다! 코스튬 목포' 행사가 진행돼 야행객들이 집중됐다. 이 행사에는 각국 역사와 일본인, 조선인, 지게꾼, 인력거, 유랑극단 등 당시의 이상을 착용하고 거리를 누비면서 중간 중간 상황



지난 7일 목포 문화제 야행에 참석한 김중식(오른쪽) 목포시장(가운데) 시민을 인력거에 태우고 직접 끄는 체험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목포시 제공)

극을 펼쳐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1층 3백(목화, 소금, 쌀) 체험과 목화등(燈)·공예 만들기, 전통놀이 '육단아 놀자', 샌드 아트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야행 길에서 만난 나선화 전 문화제 청장(문화제 야행 청안자)은 "옛날 동네 마실 다니듯이 새로운 눈으로 목포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지역민들이 소통하면서 삶의 편안함, 안도감,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전 청장은 "밤에 문화제의 불을 밝힌다는 건 그 시대정신을 밝히는 것"이라며 "밤을 거닐다보면 힘이 생겨나 구도심이 점차 생명력을 갖게 돼 21세기 신구

도심 균형발전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 박유정 씨는 "행사 규모가 생각보다 커 놀랐고 콘셉트가 애매모호한 항공축제보다도 훨씬 낫다"며 "문화제 야행 행사를 모티브로 축제로 승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올해 첫 열린 야행 행사는 문화제를 활용한 목포 대표 야간 문화콘텐츠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예술자원 활용과 협업을 통해 이뤄져 의미가 크다"면서 "오는 10월 26일과 27일 열리는 2차 야행에는 전시·체험 행사 위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전남 동계 전지훈련 유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제축구센터에서 동계 전지훈련 중인 축구 선수들.

목포시 동계 전지훈련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목포시가 전남 동계 전지훈련 유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목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유치인원, 해외 팀 유치실적, 전지훈련 팀 인센티브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도비 보조금 2524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지난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도비 보조금 2470만원을 지원받았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축구·육상·수영·카누·야구 등 11개 종목 국내·외 173개 팀 3만여 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목포를

찾았고, 이에 따른 음식점·숙박업 등 지역경제 소득유발효과는 2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는 온화한 기후,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실내육상 트레이닝장, 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야구장 등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최고의 동계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체류기간 5일 이상의 전지훈련 팀에게 지출 총액의 10%를 지원하자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해수청, 여객선 안전·관리 업그레이드

해사안전감독관 기능 확대 노후 여객선 현대화 추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여객선 안전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 기능을 확대하고 노후여객선 현대화를 추진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전)은 섬 주민과 여행객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선의 안전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 나간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감독관은 여객선과 사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여객선과 사업장에 연간 290 여회의 특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점검계획에 따라 7월말 기준 231회 실시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사고는 최근 3년간 전체 연안사고의 2.7%에 불과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해사안전감독관제도도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됐다.

목포해수청은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선원의 운항부주의 등 인적과 실이라고 보고 보다 엄격한 선장 적성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장 적성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에 여객선 선장보다 높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오랜 승선경력이 있고 항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항로별 특성과 관련된 질문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선장의 운항 능력을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목포해수청은 노후여객선의 현대화사업에도 앞장서 여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면허받은 69척의 여객선의 평균 연령은 11.37년이다. 연령 20년이 넘는 일부 차도선 및 카페리 등은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 및 지원할 계획이다.

김평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목포를 찾는 여객선 이용객이 연간 600만명이다"며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